



2011.08.05 (08.06, 04:00기준)

Global Markets

	Last	Net Change Q	%	Volume		Last	Net change Q	%	Volume
Mini S&P 500(9월)	1,195.00	-21.00	-1.73	5,883,372	EURO/USD(9월)	1.4264	0.0136	0.96	507,001
NIKKEI 225(9월)	9,290	-140.00	-1.48	33,495	GBP(9월)	1.6364	0.0085	0.52	144,133
HANG SENG(8월)	20,741	-964.00	-4.44	139,378	AUD(9월)	1.0408	-0.0045	-0.43	267,171
Crude oil(9월)	86.93	0.07	0.08	461,991	JPY(9월)	12,758	101.00	0.80	176,890
Gold(8월)	1,659.50	3.50	0.21	785	KRW(9월)	1,071.50	7.00	0.66	1,150
Corn(9월)	693.00	-0.75	-0.11	79,097	10yr notes(9월)	127.0938	-0.8594	-0.67	2,308,441

Scheduled Release Dates for Economic data

요일	한국시간	통화	경제지표 / 기업실적*	이전	예상	실제	요일	한국시간	통화	경제지표 / 기업실적*	이전	예상	실제
05일(금)	08:00 pm	CAD	캐나다 7월 고용변화	28.4K	17.7K	7.1K	08일(월)	10:30 pm	AUD	호주 ANZ 구인광고건수 m/m	3.7%		
	08:00 pm	CAD	캐나다 7월 실업률	7.4%	7.4%	7.2%	09일(화)	10:30 am	AUD	호주 6월 주택대출 m/m	4.4%	0.8%	
	09:30 pm	CAD	캐나다 6월 건축허가건수 m/m	20.9%	-4.8%	2.1%		11:00 am	CNY	중국 CPI y/y	6.4%	6.4%	
	09:30 pm	USD	미국 7월 비농업취업자수변화(NFP)	46K	89K	117K		5:30 pm	GBP	영국 6월 제조업 생산 m/m	1.8%	0.3%	
	09:30pm	USD	미국 7월 실업률	9.2%	9.2%	9.1%		9:15 pm	CAD	캐나다 7월 주택착공건수	201K	193K	
	11:30 pm	CAD	캐나다 7월 Ivey PMI	68.2	61.5	45.4							

Market Overview

- ▣ 글로벌 경기 우려로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 급락
- ▣ 미 달러가 대부분의 주요 상대통화 대비 하락... 미국 고용지표 호조
- ▣ 미국 7월 비농업 취업자수 11만 7000명 증가(예상 8만 9000명 증가, 이전 4만 6000명 증가)
- ▣ 미국 7월 실업률 9.1% (예상 9.2%, 이전 9.2%)
- ▣ 원유 3개월 중 최대 주간 하락폭 기록...NYMEX 크루드 9월물 장중 11월이래 최저인 82.87달러 터치
- ▣ Comex 금 12월물 일점점 1,644.2달러 찍으며 하락...다른 시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매도물량 출회

간밤 미국 증시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이탈리아 및 스페인으로의 유로존 채무 위기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2년래 최대폭 하락세를 보인 후 5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대만과 홍콩 증시가 5%대의 폭락장을 연출한 가운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증시도 2~4%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유럽 증시는 미국 및 아시아 증시의 급락세를 따라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유럽 600지수는 전일보다 1.8% 하락한 238.088에 마감했다. 주간으로는 9.9% 하락한 것이고 올해 최고점 대비 18% 떨어진 셈이다. 다른 범유럽지수인 FTS유로퍼스트300지수는 장중 한때 961.45까지 후퇴하며 2010년 5월 이후 1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이번 주 들어서는 11% 가량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는 14% 가량 후퇴했다. 종목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자동차 업종이었다. 차량의 판매부진에 대한 우려로 이 부문에서 투매장세가 연출되면서 자동차 관련 지수가 약 4%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증시는 미 노동부가 7월 고용지표를 발표하자 하락세를 떨치는 듯 보였다. 미 노동부는 7월 일자리 창출이 11만 7천 명에 달했고, 실업률도 9.1%로 전월보다 0.1%p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8만 5천명, 9.2%에 비해 개선된 수치이다. 하지만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반전했다. 고용지표 호조에 상승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더불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곧바로 하락세로 반락했다.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는 잠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ECB의 루크 코인 이사는 ECB가 재정 적자국가들이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하면 이들 국가의 채권을 더 많이 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관계자들은 다음 주 FOMC회의, 중국 물가 등을 확인한 후 향후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일 원유는 9월을 기준으로 장중 11월이래 최저인 82.87달러를 터치하며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미 고용지표 효과로 6일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일고가 88.32달러를 찍기도 했으나 주로 87달러와 86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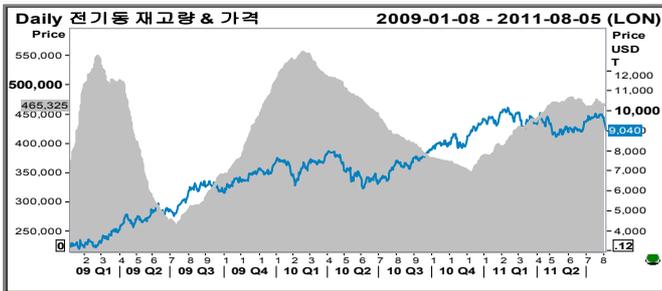
Base Metals

2011.08.05 (08.06, 04:00기준)

LME 3M	Open	High	Low	Latest Close	Previous Close	Change (\$)	Volume	Open Int.	Change (t)	금월 평균		전월 평균		SPREAD (Cash-3M)		OFFICIAL PRICE	
										Cash	3M	Cash	3M	Bid	Ask	Cash	3M
COPPER	9,320	9,332	9,011	9,041	9,535	-314	37,445	280,795	2,383	9,529.7	9,548.9	9,619.2	9,640.3	-26c	-24c	9,190.0	9,202.0
ALUMINUM	2,493	2,475	2,405	2,402	2,525	-74	33,854	729,194	7,949	2,515.9	2,545.2	2,512.0	2,542.6	-30c	-28c	2,430.0	2,457.0
ZINC	2,338	2,338	2,197	2,200	2,377	-130	17,198	259,820	4,838	2,369.0	2,393.4	2,390.6	2,419.1	-27c	-25c	2,260.0	2,278.5
LEAD	2,467	2,468	2,343	2,361	2,522	-129	7,719	115,713	969	2,520.3	2,539.0	2,682.6	2,698.0	-16.5c	-15.5c	2,419.0	2,445.0
TIN	25,600	25,600	23,165	24,350	26,300	-155	875	20,056	234	26,728.0	26,795.0	27,312.9	27,357.6	-77c	-75c	24,730	24,775.0
NICKEL	23,420	25,600	22,700	22,505	23,805	1,145	6,033	91,283	668	24,029.00	24,054.00	23,731.19	23,770.71	-36c	-35c	23,090	23,125.0

Precious Metals

LME Stocks	금일재고	Change (t)	WARRANTS				Prec. Metals	LBMA Fixing		LBMA Lending		SPOT		COMEX Prec. Metals	
			On	Cancelled	In	Out		AM	PM	1M	2M	Last	Net Chg.	Last	Net Chg.
COPPER	465,125	-200	452,575	12,550	525	725	GOLD	1,665	1,659	0.22	0.23	1,659.70	3.95	1,659.5	3.3
ALUMINUM	4,411,175	-9,000	4,074,950	336,225	0	9000	SILVER	4,162	3,924	0.05	-0.05	38.19	-0.88	3,820.5	-121.3
ZINC	887,475	-2,050	774,050	113,425	0	2050	PLATINUM	1,700	1,709	0	-0.5	1,720.60	-14.15	1,720.2	-9.2
LEAD	309,800	-150	298,600	11,200	0	150	PALLADIUM	739	742	0	-0.5	745.18	-13.82	742.5	-10.45
TIN	22,475	790	22,240	235	790	0									
NICKEL	102,654	-126	98,208	4,446	0	126									



Base Metals

- LME 비철 일제히 급락...구리 5주 최저 9,010.75달러 터지, 기타 비철금속들 2~6% 낙폭 기록
- 상하이거래소 알루미늄 재고량 주간 12.9% 또는 23,585톤 감소한 158,130톤, 2년 최저

또 한 차례의 금융 위기가 미국과 유로존을 덮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세계 증시의 흐름과 동반해 금일 비철금속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LME 구리가 5주 최저까지 떨어졌고 대부분의 금속들이 약 5% 대의 낙폭을 나타냈다. 구리 3개월물은 전일 증가 9,355달러로부터 급락해 장중 9,010.75달러로 6월 28일 이래 최저가를 터치한 후, 3.4% 내린 톤당 9,040달러로 마감하면서 3월이래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구리와 동반해 다른 비철 금속들도 2~6% 하락했다. 알루미늄 3개월물은 1월말 이래 최저로 3% 내렸다. 칠레 Escondida 광산의 파업 종료 결정이 전해졌지만 단기적 구리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광산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2주에 걸친 파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상하이 거래소 알루미늄 재고량이 주간 12.9% 또는 23,585톤 감소한 158,130톤으로 2년 중 최저를 기록했다. 알루미늄의 급격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국 수요가 가격을 하락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2011.08.05 (08.06, 04:00 기준)

Global Market Overview

- ▶ 지 수 : 뉴욕증시, 고용지표 예상상회로 상승 출발했으나 더블딕 우려로 인해 곧바로 반락
- ▶ 통 화 : 미 달러가 대부분의 주요 상대통화 대비 하락... 미국 고용지표 호조
- ▶ 귀금속 : Comex 금 12월물 일저점 1,644.2달러 찍으며 하락...다른 시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매도물량 출회
- ▶ 에너지 : 원유 3개월 중 최대 주간 하락폭 기록...NYMEX 크루드 9월물 장중 11월이래 최저인 82.87달러 터치
- ▶ 농산물 : 옥수수, 대두 사흘째 하락세...글로벌 경기침체로 식품, 사료, 연료용 곡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확산

■ 지수

- 글로벌 경기 우려로 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
- 유럽 증시 하락 출발한 후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상승 반전했으나, 13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폭락
- 미국 7월 비농업 취업자수 11만 7000명 증가(예상 8만 5000명 증가, 이전 4만 6000명 증가)

■ 통화

- 달러, 장중 한때 0.7610 스위스 프랑을 하회하며 신저점 경신
- 캐나다 달러가 미 달러 대비 2주째 하락...글로벌 경기성장 둔화가 원자재 수요에 악영향 미칠 전망 + 위험회피 경향
- 유럽 외환시장에서 스위스 프랑 약세...장중 유로대비 1.07112스위스 프랑으로 사상최고가 기록

■ 귀금속

- Comex 은 9월물 일저점 37.555달러 찍으며 약세
- 런던 팔라듐 현물 3.3% 내린 723.75달러로 5월 23일이래 최저 수준 기록
- NYMEX 플래티넘 10월물 일저점 1,682.0달러 찍으며 약세

■ 에너지

- ICE 브렌트 9월물 소폭 강세...WTI에 배럴당 22.46달러 프리미엄 (8/2 22.67달러가 사상최고치)
- 천연가스 9월물 장중 3.901달러로 3월 15일 이래 최저가 찍은 후 0.5% 이상 소폭 상승

■ 농산물

- 밀 선물 사흘째 하락세...보다 저렴한 동유럽산 곡물이 미국 밀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
- 8/4 이집트가 러시아, 루마니아 산 밀 240,000톤을 톤당 261.94달러, 262.50달러에 수입(7/22 기준 미국 연질 밀 수출가 격은 톤당 275.30달러)